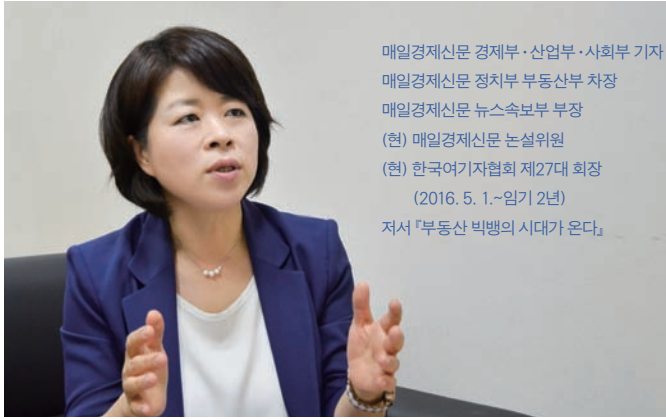


“여기자, 남기자가 있지만 취재영역과 취재기사에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산업부·사회부 기자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부동산부 차장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 부장
(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현) 한국여기자협회 제27대 회장
(2016. 5. 1.~임기 2년)
저서 『부동산 박병의 시대가 온다』



채경옥

한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길뿐이라는 “여기자”, 기사는 엄정하게 쓰되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이슈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자”, 20~30대 젊은 여기자 층의 급성장이 협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향후 역점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힌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을 만났다.

Q. 제27대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여기자협회에 대해 알려주시고 향후 회장님의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A. 한국여기자협회는 중앙 언론사 여기자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현직 여기자 모임입니다. 여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낯설던 1961년 4월 여기자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현재 중앙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경제지, 스포츠지, 영자지 등 25개 회원사 1,100여 명의 여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각 사에서 국장, 부장, 논설위원으로 활약하는 중견 여기자들도 크게 늘었고 향후 국내 언론에서 여기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글을 읽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 각 언론사 내에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자들은 육아까지 병행하다 보면 재교육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는데 협회가 제공하는 국내외 연수는 회원사 여기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력 개발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협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특파원으로 선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현 직장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자 이후 인생 이모작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가 되려는 대학생들을 위해 20년 넘게 개최하고 있는 무료 워크숍인 ‘기자가 되는 길’은 해마다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비기자 지망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매년 리더십 세미나 등을 통해 여기자들이 고위 관리직에

걸맞은 준비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른 전문 직종 여성들과의 교류강화,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금융계 등에 여성 임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협회는 이들 여성 리더계층과 여성 언론인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자 자녀들은 부모들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장 꺼리는 원생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기자, 여기자 할 것 없이 기자생활 하면서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사별 직장 보육시설 해법을 꾸준히 찾아보겠습니다.

Q. 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일과 가정생활을 잘 양립해오셨는데, 직장인 여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여성 비중이 30% 이상은 돼야 합니다. 30%는 어떤 조직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인사적 배려가 시작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조직은 성별, 인종, 국적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발히 권장한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가부장적 여성억압 문화가 온존해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부진한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경제 위기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부정부패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곧 국

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국가, 사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 여성들이 아예 출산을 꺼리거나(저출산), 남성 혼자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거나(노령 빈곤),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진출이 막힌 전업주부들이 자녀교육에 과잉 몰입하는(사교육) 등의 각종 사회문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Q. 기자는 어떤 직업이고 글쓰기 이외에도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A.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우선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만나서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주고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것은 기자가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해놔야 심도 있는 질문, 날카로운 질문,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기자는 질문대상을 고를 때도 국민 전체를 대리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를 찾아서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공정함, 엄정함 그리고 균형 감각이야말로 기자가 기자인 이상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가치들입니다.

Q.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요?

A. 여기자들은 여성인 동시에 엄마이고, 직장여성이기도 하고, 아내이자 며느리·딸이기도 합니다.(미혼 여기자들도 많습디다만) 각종 사회 사건을 볼 때 남성 기자들보다 훨씬 감성적 공감의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 피해자가 유독 많은 가슴기 살균제 사망 사건, 온 국민의 건강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문제, 공교육 붕괴 및 과도한 사교육 문제, 원자력 발전 안전 문제, 직장 내 양성평등 문제 등도 여기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자들의 활동 영역이 생활,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분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남녀 구분 없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이슈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관심, 치열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자, 남기자가 있지만 취재영역과 취재기사에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Q. 26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해 오셨는데 언론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닳고 싶은 언론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선배 언론인 중 한 분이 “백 번의 특종보다 한 번의 오보를 더 뼈아프게

여기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기자라면 항상 특종을 욕심내기 마련이지만 오보를 경계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엄정하게 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강점은 언론인의 기본인 ‘글빨’과 ‘호기심’ 그리고 ‘친화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원만함과 친화력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언론인 상은 최근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나왔던 마틴 배런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당시 보스턴 글로브 편집국장) 같은 분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 가는 통찰력, 팩트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꼼꼼하고 끈질기게 확인하는 지구력,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언론인으로서의 용기, 그리고 후배들에게 먼저 공을 돌리는 겸양을 갖춘 언론인들이 많아질수록 언론의 위상과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최근 역설적이게도 여성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160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뒤 “여성의 힘이 클수록 국가의 경제적 성공도도 높다”고 결론을 내렸고, 앞으로 인구감소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길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역사적 필연성인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필연성에 저항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언론사에서 구조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게이트키퍼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여기자들의 양적, 질적 팽창을 통해 자연적으로 파워슈프트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시각 교정이 이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A. 사회가 다층화되고 언론사가 다양해지고 사회구성원들의 언론관이 변화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권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오보나 편파보도를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다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금력, 권력,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사회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조정·중재’라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 ‘언론자유 수호’의 보루가 되어주시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더 많은 여성 언론인들이 중재위원으로 중용되길 바랍니다.